마산 무학초등학교 담벼락에 남은 총탄 자국(1960년 3월 16일)

사진제공 3 · 15의거기념사업회

......그러다가 드디어 三월十五일이 왔다. 한국의 남단이 조고만한 항도 마산에서 필경은 피의 항쟁이 전개리고 만 것이다. 「부정선거를 물리치라!」「학원의 자유를 달라!」라고 외치고 일어난 마산(馬山)의 학생 및 시민들에게 경찰은 실탄으로 제지하기에 이르러 이 고장에서 처음으로 七명 이상의 피살자가 생긴 것이다. 한국의 선거는 드디어 피를 보고 만 것이다. 다음 경찰은 이들에게 무지무지한 고문으로 보복하였고 또 이들에게 공산 누명까지 씨우려고 하였던 것이다.......실로 三 · 一운동이나 광주 학생사건을 능가할만한 기세가 전국을 휩쓸고 있었던 것이다........

(봉암 지헌모 편저, 『馬山의 魂』(1961년) 중에서)